

목련이 귀신돼 남달왕과 백성을 제도하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2)

남달왕이 무한한 복을 짓다

사위국에 남달이라는 왕이 있었다.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들은 온순하면서 믿음이 있었으며, 임금과 신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도로써 이끌었다. 후왕이 즉위하자, 법과 풍속이 차츰 가버워지고 정치와 행이 평등하지 않았으며, 왕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굴고 죄 없는 이를 멋대로 베었으므로, 바른 것은 어지럽혀지고 재앙이 응하여 비는 제때 내리지 않아 오곡이 익지 않았으며, 서로 요괴한 짓을 하여 마침내는 거칠고 잔악해졌으며, 왕은 위험과 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사악한 도를 가르치는 5백의 외도들을 받아들여 섬겼다.

또 요망한 신을 섬기는 풍조가 번졌고, 백성들은 다투어서 나쁜 짓을 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고 죽였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도리를 따르지 않았으며, 남의 부녀자를 간음하였고, 임금과 신하는 늘 취해 있었으며, 미혹은 날로 자랐다. 가뭄이 3년 동안 이어지자 임금과 백성들이 청하고 기도하였으나 전혀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자 여러 신하들은 왕에게 말했다.

“이제 큰 제사를 지내야겠습니다. 어린 사내아이 일곱과 흰 소와 흰말 각각 머리씩을 불에 태워서 하늘에 제사지내야 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왕은 신하들이 말하는 대로 제사를 준비했다. 이때 부처님께서 나라 안이 흉흉하고 소란스러움을 보시고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남달국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몹시 고통한다. 3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에게 해탈을 얻어야 할 것이니, 가서 개화해야 할 것이다.”

목련이 가서 그들을 위하여 설법하며 그의 뜻을 풀려 하였으나, 나라 안의 백성들은 애초부터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련은 키가 수십 길에 되는 큰 귀신의 몸으로 성문에 버티고 앉아 큰 소리로 왕과 신하들을 부르며 나오게 했다. 임금과 신하들은 당황하며 두려워했고, 왕은 이내 가까운 신하들을 데리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살려 주십시오.” 귀신이 왕에게 말했다.

“신하로서 충성하지 않고 아들로서 효도하지 않는 자를 급히 찾아오너라. 내가 잡아먹겠다.”

왕은 이내 여기저기 물어보고서 대답했다. “없습니다.”

이때 목련이 다시 진짜 몸을 나타내고 가서 귀신과 함께 말을 하자, 왕은 목련을 보고서 머리를 조아리고 부탁했다.

“청을 들을 터이니 저 귀신에게서 풀려나게 하소서.”

목련이 왕에게 말했다.

“이 귀신이 무엇을 구하려 하나요?”

“나쁜 사람을 잡아먹겠다입니다.”

목련이 물었다.

“나라 안에 진실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듭 청합니다. 내보내 주십시오. 제

가 평생토록 도인에게 귀명하겠습니다.”

목련은 큰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안의 백성들 중에 그대가 찾는 이는 없소. 그대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오. 만약 다시 범하는 이가 있다면 다시 와서 잡아먹으시오.”

그러자 귀신이 그 말을 듣고 홀연히 떠나가 버렸으므로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이내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고서 귀명하기를 청하니 목련이 말했다.

“왕께서 만약 귀명하시겠다면 먼저 부처님께 귀명해야 합니다. 왕이 부처님의 공덕을 몸으로써 목련이 말했다.

“부처님이야말로 삼계에서 홀로 높이고 말씀하시는 법의 음성은 삼천세계까지 들립니다.”

목련이 설명하자 왕이 말했다.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기이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삼화 · 강병호

이내 목련에게 여쭙었다. “부처님을 청하여 높으신 법의 음성을 받고 종신토록 받들어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목련이 왕에게 말했다.

“진실로 그러할 수 있다면 그 복은 측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마음을 깨끗이 하여 부처님께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자 왕은 이내 가르침을 받고 목욕재계하고 멀리서 부처님 나라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면서 말했다.

“제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백성 위에 군림하게 되었기에 깨끗한 마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나라를 공허하고 거칠게 했으니, 허물은 저의 몸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드리우셔서 널리 백성들이 끝없는 복을 얻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오시다가 백 리쯤의 거리에서 미리 공중을 건너시자, 다섯 빛깔의 연꽃이 발아래를 받쳤으며, 여러 하늘들은 돕고 따르면서 보배 장막과 꽃 일산으로 길에서 받들어 맞이하였고, 여러 이름난 음악이 울리면서 공중을 꽉 채

웠다.

부처님의 거룩한 신력과 천지가 빛나는 것을 보고 왕과 신하들이 발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네거리 에다 널리 장막을 펴며 술고 뿌리고 깨끗이 하여 놓자, 부처님께서 저절로 된 사자자리에 앉으시니 깔린 천은 모두가 하늘 비단이었다.

왕은 손수 음식을 나르고 몸소 물을 돌렸으며, 축원을 마치고 부처님께서 괴로움과 공과 무상과 4제의 법요를 말씀하시자 왕은 기뻐하면서 5계 받기를 청했고, 맺음이 풀리고 때가 없어지면서 수다 없이 되었다.

그때에 왕이 섬기던 5백의 외도들은 비구가 되기를 청했고, 부처님께서 이내 허락하시면서 손으로 그들의 머리를 만지시자,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가사가 몸에 입혀졌으며, 그로부터 7일 후에 다 같이 아라한이 되었다. 모였던 백성들도 수다원이 되

었고, 혹은 5계를 받아 부지런히 열 가지 선행을 하며 3존께 귀명하여 매달 6재와 매년 3재를 받들면서 차츰차츰 서로가 이끌어 늘 행하는 법으로 삼았다.

아난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이 왕과 백성들은 전생에 목련과는 어떤 인연이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유위불(維衛佛) 때에 목련은 우바새였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계행을 받들어 행하였고, 뜻을 수호하며 깨끗하지 않았다. 산에서 꽃을 따다가 수문나무를 보고 나무에 올라가 꽃을 따려 했는데, 앞에 벌집이 있는 것을 몰랐다. 벌떼 수천 마리가 놀라 흩어지면서 달려들었으므로, 생각하기를 ‘만약 내가 도를 얻으면 너희들을 제도하리라’ 했다.

오늘에 도를 얻은 이들은 모두가 그때의 벌들이다. (《남달왕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④



말이 준 교훈 (1)

말 한마디

우리집 아래층에 살고 있는 애기 엄마가 아기를 업고 우리 집에 놀러왔다. 애기 엄마는 내가 현대불교에 연재하고 있는 '바라밀 일기'를 즐겨본다며 만날 때마다 과찬이다. 그리고 신문이 나올 때마다 이번엔 어떤 글이 실렸을까 궁금해 하며 연속극 기다리듯 다음 글을 기다린다고 했다. 나는 고맙기도 하고 과찬에 쑥스러웠다. 애기엄마는 그동안 내 글을 모두 스크랩했다며 모아 두었던 스크랩북을 들고 왔다.

우리 평소에도 서로 잘 지내는 사이였지만 그날은 더욱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부처님께 절 할 때 방석위에 덮개로 쓰라며 내가 물감으로 그린 깔개 하나를 선물했다. 이웃에 좋은 인연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지 싶다. 더구나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지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그 관심이라는 것이 곧 정성이며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나는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누군가 나의 글을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함부로 쓸 일도 가벼이 여길 일

말 한마디가 큰 오해 불러

제삿날 하루만이라도 효도하고파

도 아니었다. 더구나 요즘은 주변 사람들이 나의 글을 읽고 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오는 일들도 종종 있어 더욱 글쓰기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2주 전에 썼던 병아리(구족이) 이야기를 읽은 지 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다. 서울의 아들 가족이 계란(유정란)으로 엄마 닭 없이 인공부화하여 태어난 병아리 세 마리 이야기였는데 신문사 편집자의 윤문 과정에서 글의 원뜻과 많이 달라지게 됐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모양이다. 아들이 키운 닭이 병아리를 태어나게 한 것으로 잘못 묘사되어 지인은 아들이 닭을 키우느라고 몰았다. 또 추석날 데리고 온 병아리를 마당 있는 집으로 데려다 키우게 할 생각이었다는 말도 잘못 전달되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내가 아파트가 아닌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지인들 중에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 주택으로 이사했다고 묻는 사람도 있어 많이 당황스러웠다. 결국은 내가 글을 꾸며서 쓴 것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말이란 이렇게 글자 한자 잘못 전달되면 한 순간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모 회사에 근무하고 며느리는 미술관

에 근무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글자 한자에 그 사람의 삶이 순식간에 변해버릴 수도 있는 일인 것이다. 아무튼 그 글이 나가고 나서 나는 글에 대한 해명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그리고 신문사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았다.

잠결에도 바른말 진실한 말로서 자신도 속이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함을 생명처럼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기회가 됐다.

제삿날

몇 년 전 큰오빠가 홀연히 운명을 달리 했다. 오빠는 전 해부터 가실 것을 예감을 하셨던지 집안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의 제사를 아들 셋과 세 며느리한테 고생시키고 싶지 않라며 지금부터는 제사를 모아서 지낼 것을 당부하며 대신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지낼 것을 당부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딸인 나로서는 섭섭함을 금할 수 없어 큰 오빠의 당부를 이해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출가외인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 그 다음해에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 제삿날이 되어 친정집으로 가지만 이제 위로 어른들은 다 떠나시고 올케언니만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어 마음 한켠 서글퍼지기도 하여 걸음이 무거웠다. 서울에서 내려온 동생과 우리 내외 그리고 작은 올케 언니랑 갖가지 과일과 제물을 사가지고 갔다. 과일을 가득 담으면서 유독 눈에 들어온 과일이 감이었다. 예전에 감 밭을 크게 해서 감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어릴 적 마당 한쪽에 손이 닿는 감나무 가지들 잡고 잘 익은 감을 하나씩 돌려 따먹던 기억이 났다.

우리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엄마도 오빠도 그 옛날에 참으로 즐겨 드셨던 감이었다. 특히 나무에서 훔치로 먹을 때면 끝까지 따서 소쿠리에 담아 제일 어린인식 할아버지 사랑방에 들여 놓으면 할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 올 때를 기다렸다가 사랑채에서 꼭 안채로 보내 주시곤 했었다. 오늘 문득 감을 보면서 어릴 적의 추억이 떠올랐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이 흔하지만 그 옛날 시골의 엄마들은 임신을 해도 신 음식이라고 살구와 매실만 보아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을 먹고 싶다는 말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일까지도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인데 몰라서 먹어보지 못했던 그때의 엄마 모습이 오늘따라 너무도 그리고 보고 싶다. 제삿날에 가득 차려진 많은 음식과 과일들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어머니가 지금 이 모든 음식과 과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맛보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랐다. 그동안 불효한 것 같아 가슴 아팠는데 하루만이라고 용서 받고 싶은 심정이었다.

차례대로 모셔진 위패를 향해 나는 한 분 한 분 조용히 모습을 떠올리며 은혜를 기려보았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템플스테이, 이것만은 알고 가자!

사찰 예절, 건축물, 조형물, 벽화, 도구, 불교의 상징물, 예불, 사찰 생활, 수행법, 예불문과 경전 해설, 애송되는 불교 명문 등으로 구성. 불자들은 불교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불교의 정신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책!

템플스테이 길라잡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한 안내서이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을 위한 불교입문서!

남궁 선 역음/신국판 컬러/303쪽/값 15,000원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백봉 김기추
거사의
선이야기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는,
일반 재가자들을 위한 새로운 공부 방법!
거사풍 불교를 일으켜 세운 백봉 선생의 새말귀 수행!

백봉 선생의 가르침 가운데 요긴한 것들을 간추려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안경에 편집/신국판/350쪽/값 15,000원

